

독자 마당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88
·전리안: aeam
·하이텔: 34713

굶주리는 북한동포 이유불문 도와줘야

동포의 굶주림을 놓고 세간이 시끄럽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량미로 쓰인다느니, 주민은 굶어죽는데 축제를 벌인다는니 하며 아직은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이다. 영권히 선 곳과 살아갈 남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굶이 종교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동포의 굶주림을 놓고 현재 우리나라 식량차원의 창구인 적십자사를 돌이켜보자. 적십자사가 무엇인가? 총부리를 마주대고 싸우는 전쟁 중에도 적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상자는 치료해 주는 적십자사가 아니던가.

이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앞에 두고 1년에 8조원의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서 오늘도 살해기 피쟁에 꿈 흘리며, 여전히 군량미, 정식을 차려야 한다는니 하며 바라보기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지원(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훼손 방치된 석불

불두(佛頭)가 없어지고 신체 일부가 파손된 채 아무렇게 버려진듯 구덩이 속에 묻혀있는 어둔리사지 석불좌상(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부근에는 석물상을 비롯해 불두, 팔각연화 대좌, 비석 등 대부분이 훼손된 채 내버려져 있어 찾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안상빈(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이 된다.

지난해 진안 마이산 탐사에 이어 올해 불거진 장성 백양사건을 보며 실로 장성군의 막무가내식 고압행정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올바른 묘지문화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납골사업을 혐오시설로 비하하여 사찰에 학대 행정을 펼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종단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김혁(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요하다고 본다.

김혁(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조선족 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보상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한국의 무관심에 조선족 피해자들은 한 번 더 상처를 입는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던 조선족 한국초청 사기피해자 대책협의회 회장 이영숙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듯 하다.

독자 시

道の 한 경지

여인이여! 아름다움 하나로 천하를 얻겠는가?
용사여! 힘센 용기 하나로 생사고해를 건너겠는가?
아름다움과 용맹으로 자신을 정복한 자 없는데
졸리어서 시지처럼 용기 있는자는 한번 죽는다면
홀로 우뚝 서 있는 도인에게 생로병사가 없어도
대인(對人) 대물(對物) 대사(對事)에 선도 악도 일으키고 없고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말할 필요조차 없어
나홀로 우뚝 서 있으니 윤회도가 뭘 말인가?
천당에도 지옥에도 거리낌이 없으니 이 시간이 안락이아라
잘난 것은 잘나 좋고 못난 것도 그대로 있어 훌륭하다
기쁨도 슬픔도 바람처럼 지나가 후박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도 옛 것도 곧 지나가니 생로병사도 지나갔네
할일들이 없어졌어, 갖고 싶은 것도 없어졌어,
애욕도 사라졌어, 인연의 새끼줄도 사라졌어,
이제 집착이 없어지고 매듭에서 풀려나니
종의 수준을 뛰어넘어 나홀로 우뚝 서 있네
오가되 오가는 것 없고 생사에 속해 있으나
마음이 주인이 되어 대자유를 누리니
지금 이 마음이 열반이아라...

고당 전도석(상도교회 회장)

조선족 한국초청 사기피해자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자가 1만명천명에 그 피해액만도 7백50억원, 실제 피해자는 3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액 보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조선족 피해자 대책협의회의

주장에 귀기울이고 대책마련을 위해 우리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 조선족도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나갈 또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준희(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현대불교를 읽고

김성렬 검사 강의법문 실어줬으면

얼마전 현대불교신문에 '현직 대구지검 김성렬 검사의 <능엄경> 강의'라는 기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나와 실망스러워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틈틈히 공부해 올 8월이던 불교공신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불교공부 때문에 보는 현대불교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고, 함께 있는 불자들에게 들려가며 읽었습니다.

스님이나 포교사 1백명보다 김검사의 말씀 한마디가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검사님께서 동화사 포교원에서 매주 한차례씩 3개월간 <능엄경> 강의를 하신다는데 그 귀한 법문을 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해 주시어 불교를 공부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철우(경북 안동시 풍산읍)

◇이태녕박사의 '건강과식물'은 필자시점으로 마침입니다. 129호 기사 중 '웹사이트'와 '웹서버'는 '웹사이트'와 '웹서버'로 바로 잡습니다.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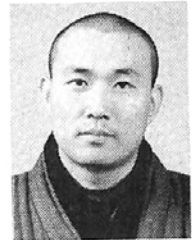
역경원칙 세우자

불교의 앞날은 부처님 가르침인 대장경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계의 역경사업은 3대 불사의 하나이며,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표표를 잡고 추진해야 마땅하기에 문제를 제기해 본다.

현재 역경사업은 한문경전의 번역인 까닭에 용어의 통일된 해석이나 문장의 구성에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용은 같아도 역경하는 분들에 따라 토씨가 다르고 조사를 달리 사용해 읽는 이들에게 명확한 전달이 쉽지 않다. 요 근래 <화엄경> 심행품에 나오는 '보살에게 열가지 품이 있다'는 법문을 찾아본 일이 있다.

한문으로 보면 몇줄 안되는 구절임에도 번역하고 풀이해 놓은 여러 한글로된 <화엄경>

가 안을 내고 그 안을 서로 검토하여 다시 수십인의 고역을 이 종합하고 필경에는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될 문장으로 만들어 기뻐 여러번의 회합을 가지며 경전의 한구절 한구절을 번역했다. 또 대당서역기를 쓴 현장법사는 대·소승경전 6백57권을 가지고 돌아와 황제의 조칙을 받아 역경했다. 경전의 취지를 그대로 존중해서 문장에 주의를 가함이 없었고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방언은 그대로 사용하는 등 원전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전의 말과 뜻은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부처님가르침을 찬탄하게 하고 원문에 충실하여 비로서 여래가 권한 최상의 경전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불해 한글 경전의 다양함은 언제가는 이루어질



해일스님
(경주 불광현의원장)

10인 10색의 각각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예로 불망신(不安身)의 경우 '몸'의 설명에서 '무지를 떨리한' '우치와 허망을 떠난' '망령되지 아니한' '우치를 떠난' 등으로 풀이돼 있다. 이것이 불교의 다양성으로 비취될 수 있으나 오히려 신자나 비신자들로 하여금 불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난해함 때문에 숲을 보고 산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마라습님은 각종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수백의 역경사 통일된 문제의 역경작업에 밀려들어 있다고 자위해 볼수 있겠으나 한번 인쇄되어 나온 경전은 수백 내지 수천년을 간다고 볼 때 좀더 집중하고 종합적인 경전번역의 대원칙이 수립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번역상의 오류가 요즘 얘기하는 저작권법등의 문제로 인한 시비의 소지를 줄이기위해 조금씩 토씨와 글자를 바꾸어 사용되다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전의 번역과 통일작업에 중지와 중의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만화 백야경

비단으로 바꾼 낡은 배웃
옛날 어떤 도둑이 부잣집에 들어가 비단을 훔쳤다

그런데 도둑은 어리석어 비단의 값어치를 알지 못했다

이것으로는 당장 입을 수도 없고...

어디다 쓰지?

그렇다

거리로 들고 나가 다른것과 바꿀 수 있다면...

도둑은 비단을 거리로 들고 나가 낡은 배웃과 여러 가지 재물과 바꾸었다

이정도면 만족하겠소?

그럼요! 그럼요!

허허 이 배웃은 당장 입을 수도 있고

거기다 이렇게 많은 먹을거리면 비단보다 백배 낫지

허허 수지 맞았다

바보같은 녀석 같으니라구...

귀한 비단을 보잘 것 없는 배웃과 바꿔 가면서 좋아하다니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이 믿는 마음이 있어 부처님의 법안에 들어가

선한 법과 온갖 공덕을 닦다가도

이의를 탐하여 청정한 계율과 온갖 공덕을 부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 배웃은 배웃과 바꾸고도 이익인 줄 아는 어리석은 도둑과 같다

TEL: 337-0296
FAX: 338-9640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의 지혜를 담아낸 온 인류의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읽는다!

팔만사천 번뇌의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들 중생을 위해 팔만사천 법문을 연 부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았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고려팔만대장경.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자한자 쓰거온 호국의 염원으로 빛어냈기에 팔백년의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훗날 하나 없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고려팔만대장경. 해서 세계는 전 인류가 보전해야 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확정하였다. 팔만대장경은 단지 불교사상의 결집체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백전불굴의 기개와 뛰어난 문화창조자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이 담겨 있으며 요요한 우리 전통과학의 정수가 체현되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방대하고 중요한 팔만대장경의 구조와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해봄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문화의 향기와 자긍심을 등록시켜 줄 것이다.

영담스님 감수 진현중 지음 신국판 720쪽 값 15,000원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오백 년의 역사를 낱알이 읽는다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는 500여년간의 왕조사를 한권으로 묶은 이 책은 조선의 역사에 관한 입문서다. 각 왕통의 기제도와 함께 조선의 과학지식,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당파싸움 등 조선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64쪽 값 10,000원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 역사의 허리에 해당하는 고려왕조. 그러나 고려의 진면목은 젊은 안개에 가려 있다. 외세의 침을 받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북방을 경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 그 강인했던 역사를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소상히 알아본다.

박영규 지음 신국판 488쪽 값 10,000원